조선시대 규훈서(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이 지 영*

〈차례〉

1. 서론
2. 언해본의 간행과 여성의 문자교육
3. 필사본에 수용된 규훈서
4. 규훈서의 수용과 이탈

〈국문초록〉

규훈서(閨訓書), 즉 조선시대 여성교육서는 여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번역되어 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문자교육서로 기능하였다. 한글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간행된 『내훈』의 언해문은 한글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줌으로써 한글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훈언해』와 『여사서』는 한문원문에 독음과 구결을 달고 있는데, 이는 사대부 남성이 경전을 학습할 때 이용하였던 경전언해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러한 언해방식은 여성이 한글뿐 아니라 한문까지도 익힐 수 있는 방편이 됨으로써 여성-한글, 남성-한문으로 구별되는 문자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규훈서는 필사본을 통해서도 널리 읽혔다. 규훈서의 필사본은 간행본과 달리 한글로만 필사되어 있으며, 원본의 내용을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원문텍스트를 생략과 축약, 부연함으로써 텍스트를 변형하는

* 안동대학교

경향을 보이며, 이밖에 주석과 원문을 구분하지 않거나 주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텍스트의 맥락이 원문과 달라지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 같은 필사본 규훈서의 변이는 원문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구의 변화를 넘어서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규훈서 학습의 능동적 측면은 문자를 통해 형성된 반성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규훈서, 여훈서, 조선시대 여성교육, 한글문화, 『내훈』, 『여사서』, 『여훈언해』, 『열녀전』, 언해서, 이중문자체계, 한글필사본

1. 서론

『내훈』이나 『여사서』 등 규훈서(閨訓書)는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교과서였다. 당대 여성교육은 여성이 한 집안에서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성교육은 유가적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교화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규훈서는 여성의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어문교재이기도 했다.[2] 규훈서의 기본 목적은 여성교화였지만, 규훈서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 윤리규범만은 아니었다. 여성의 문자교육도 이를 통해 확산되었다.

1)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경미, 「열녀전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2007; 김언순, 「조선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연구』 8권 1호, 2008; 김훈식, 「15세기 한중내훈의 여성윤리」, 『역사와 경계』 79, 부산경남사학회, 2011; 한편 백두현은 언해서를 통한 백성 교화의 측면을 논한 바 있다.(「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통치」,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2) 이경하,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과 읽기교재 『내훈』」,『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 글에서도 규훈서를 문자교육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규훈서는 간행본과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초기부터 규훈서의 번역과 간행은 지속되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간행한 규훈서의 언해본에는 한글번역문뿐만 아니라 한문원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규훈서에 따라 원문을 제시하는 형식은 차이를 보인다.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한문원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한글과 한문, 여성과 한글 혹은 여성과 한문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언해본의 원문 제시 형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간행하였던 규훈서의 간행본이 공식적인 여성교육서의 성격을 띠었다면, 필사본은 집안을 통해 편집되고 필사된 사적인 교육서의 성격을 지녔다. 간행본이 극히 제한된 계층의 여성만이 읽을 수 있었던 데 반해, 필사본은 여성교육서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주로 필사를 통해서 규훈서를 학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훈서 수용의 직접적인 흔적을 드러내는 필사본 규훈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적었다.[3]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간행본과 필사본의 내용 및 체제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규훈서가 여성의 문자문화를 확산시킨 문자교육서로서 존재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2. 언해본의 간행과 여성의 문자교육

① 조선시대 규훈서 중에서 가장 먼저 언해되어 나온 책은 1475년에 간행된 『내훈(內訓)』이고, 그 다음에 나온 언해서는 1481년에 간행된 『언문삼강행실도열녀도(諺文三綱行實圖烈女圖)』이다. 이 둘은 시기상 그리 멀지 않지만, 언해의 형식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내훈』은 구결이 있는

3) 필사문화의 발달은 일차적으로는 간행본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필사는 학습과 독서의 한 과정이기도 했다.(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한문원문과 언해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삼강행실도』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고 원문에 구결이 없다.



그림 1 『산정언해삼강행실도』

1434년에 처음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는 한문과 그림만 있었다. 이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기에 언해문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481년에 『언문삼강행실도열녀도』가 간행되었고 이를 간추려서 간행된 것이 『산정언해삼강행실도(刪定諺解三綱行實圖)』(1489년 간행)이다.[4] 1481년의 간행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1489년의 산정본만이 전해지는데 산정본에는 그림이 전면에 있고 난상(欄上)에 언해문이 들어가 있으며 그림의 뒷면에는 구결 없는 한문원문이 들어 있다.(그림1 참조)

『내훈』에도 원문과 언해문이 공존하고 있지만, 한문원문에 구결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림2 참조) 『내훈』은 이후에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한자음과 언해문이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구결이 있는 한문원문과 언해문이 결합된 언해형식은 바뀌지 않았다.[5]

규훈서의 언해가 한글을 사용하는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훈서에 한문원문이 나란히 수록된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삼강행실도』의 경우 애초에 한문원문만 있다가 나중에 언해가 이루어졌으며 사족의 家長과 父老에게 보내어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한다는 『경국대

4) 志部昭平, 「諺解三綱行實圖の傳本とその系譜」, 『동양학』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4면 참조.

5) 『내훈』의 판본은 자구의 수정 이외에 체제 면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최연미, 「소혜왕후 한씨 『내훈』의 판본고」, 『서지학연구』 22, 서지학회, 2001 참조.)

전』의 조목[6]이 있어, 원문은 교화를 담당하는 사대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결을 따로 달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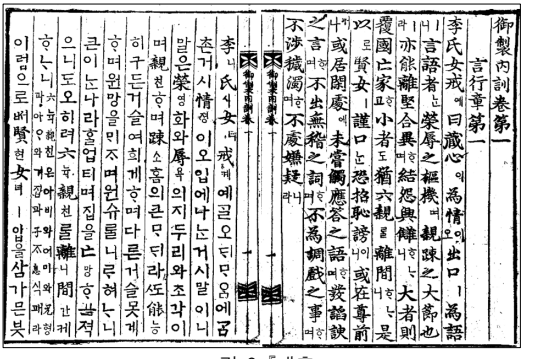

御製內訓卷第一
言行章第一
李氏女戒曰藏心於爲情發出口爲語言語者榮辱之樞機親疎之大節也亦能離聖合異結怨興釁大者則覆國亡家小者猶六親罹鬧是以賢女謹口恐招恥誇或狂言前後居閑處未嘗竊應答之語談論訣言不出無稽之詞不爲調戲之事不涉穢濁不處燗妓

그림 2 『내훈』

그러나 『내훈』의 경우에는 한문에 구결이 달려 있어 『삼강행실도』와는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체계의 권력관계 속에서 상층 여성에게 한자와 한글 사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7]주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문을 전혀 모르는 여성이라면 구결이 있더라도 원문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규훈서의 한문원문이 한문을 전혀 모르는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훈』이 궁중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는 한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궁 조씨가 『내훈』의 발문에서 "이어 언문으로 번역하여 쉽게 깨우칠 수 있게 하였다(繼以諺譯, 使之易曉)"고 한 것으로 보아, 소혜왕후는 먼저 한문으로 짓고 이 책이 쉽게 읽히도록 한글로도 번역한 것으로 이해된다.

『내훈』의 언해방식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와도 동일하다.(그림3 참조) 간경도감판 불경언해는 『내훈』이 간행된 1475년 이전까지 간행된 언해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내훈』을 편찬한 소혜왕후가 간경도감의 불경언해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8] 간경도감판 불

6) "三綱行實, 飜以諺文, 今京外士族家長父老, 或其教授訓導等, 教誨婦女小子, 使之曉解"(『경국대전』 <禮典> '奬勸'; 안병희,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8, 연세대 국학자료원, 1985, 811면.)

7) 이경하, 앞 논문, 324면; 이경하, 『내훈』, 한길사, 2011, 15면.

8) 이경하, 같은 책,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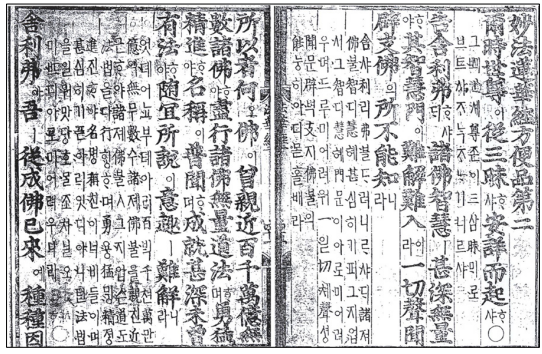


그림 3『법화경언해』

경언해의 형식이『내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결 달린 원문을 언해문과 함께 수록하는 불경언해의 형식에 대해서는,『영가집언해』 발문(跋文)의 "단지 선문의 형제가 말을 인하여 글에 통달하고 글로 인하여 그 뜻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장사치나 부엌의 아낙들도 모두 불조의 뜻을 얻고자 함이다(非但禪門兄弟ㅣ 因言以達其文ᄒᆞ며 因文以得其義라. 以至販夫竈婦ㅣ 皆得佛祖之旨)"[9]에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언해문을 통해서 하층의 남성이나 여성도 불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일차적으로 불경언해 언해는 '글', 즉 원문을 이해하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훈』 이후 나온 언해서 중 의서(醫書)의 언해에서도 구결이 달린 한글원문이 언해문과 함께 제시되었다.[10] 의서의 언해도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한문만으로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에 한글번역문이 필요하였다. 이 경우에도 언해는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내훈』의 경우에도 한문원문이 중심이고 이를 쉽게 이해하는 도구로서 언해문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 초까지도 한글의 보급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안병희는 15세기에는 한글문헌이 지방에서 간행되지 않은 이유는 그때까지 한글의 보급이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보편적이지

9) 안병희, 앞 논문, 816면에서 재인용.

10) 이호권,「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2008 참조.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1527년 간행된 『훈몽자회』의 범례에서 “변두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언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라고 한 데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를 참조할 때 『내훈』이 간행되던 1470년대에는 한글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2] 따라서 『내훈』의 한문원문과 언해가 한글만 아는 독자를 대상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한문의 완전한 해독을 위해서 언해문의 도움이 필요한 상층의 여성을 염두에 두고 간행되지 않았을까 한다.[13]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훈』은 한글이 독자적인 문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내훈』이 상층여성에게 권장되면서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은 한문원문보다는 언해문을 통해서 내용을 습득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글사용이 널리 확산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에 여성들의 한글편지가 성행하는 등 여성의 한글사용이 보편화된 데는 아마도 『내훈』을 비롯한 규훈서의 간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내훈』을 통한 한글텍스트의 정착 과정도 주목된다. 『내훈』은 초간본 이후에 다섯 번 간행되면서 개역되고 표기가 수정되었다.[14] 실록에는 1660년 현종이 『내훈』을 교정하면서 향음(鄕音)을 일일이 고치라고

---

11) 안병희 앞 논문, 816~819면.

12) 『내훈』보다 몇 십 년 뒤에 지방에서 간행된 『여씨향약언해』 및 『정속언해』(1518년 간행), 『경민편언해』(1519년)에 한문원문에 한자를 이용한 차자구결이 사용된 이유도 한글보급의 정도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이들 문헌이 지방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6세기 초까지도 한글 구결은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13) 또한 이 시기까지 한글은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병설은 조선시대 비석문을 예로 들면서 한문이 공식적인 매체로서 기능하면서 한글이 문자로서 인정되지 못했다고 논한 바 있는데, 조선전기에 간행된 언해본에 한문원문이 들어간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일고」,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구소, 2009.)

14) 1612년 『내훈』을 홍문관에서 교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훈』의 간행에 대해서는 최연미, 앞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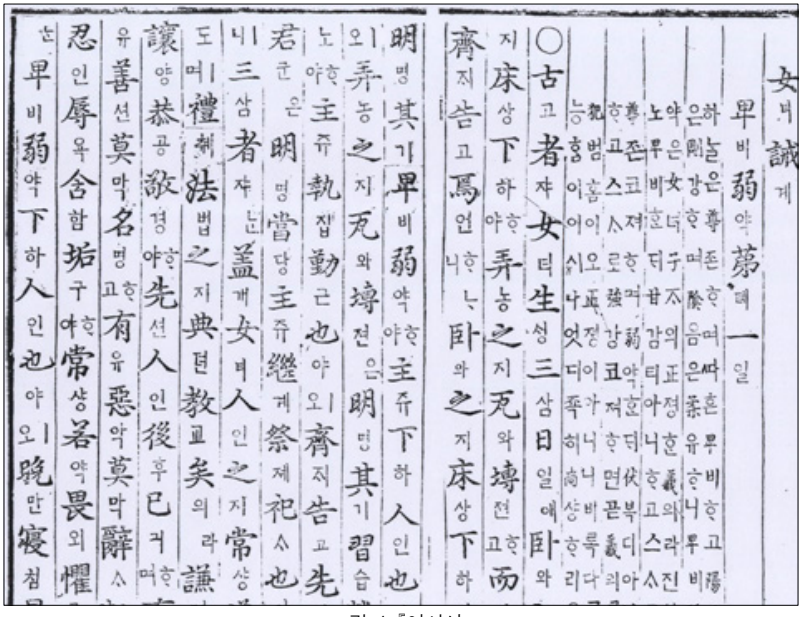


그림 4『여사서』

지시한 기록이 있는데[15], 향음의 수정은 한글텍스트가 단지 구어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을 넘어서 표준화되고 추상화된 문자문화로 옮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내훈』의 거듭된 간행과 교정은 한글문장이 규범적 글쓰기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내훈』이후에 간행된『여훈언해』나『여사서』에서는『내훈』과는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규훈서에서도 언해문과 함께 한문원문은 존재하지만,『여훈언해』(17세기경)와『여사서』(1737년 간행)에서는『내훈』과 달리 원문에 구결 뿐 아니라 '독음(讀音)'도 달려있다.(그림4 참조) 언해문과 함께 독음과 구결이 달린 원문을 수록한 것은『소학언해』(1588년 간행) 및『효경언해』(1588년 간행)와 동일한데, 1585년 교정청이 설치된 후에 표준화된 경전언해방식이다.[16] 이러한 경전언해는 초학자의 한

15)『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 9월 5일.
16) 이호권, 앞 논문, 98~99면 참조.

문학습을 용이하게 하였다. 즉, 한문원문에 독음이 있었기에 한문을 잘 모르는 초학자들도 한문을 읽을 수 있었다.

『여훈언해』나 『여사서』의 언해방식은 이처럼 16세기 말부터 보편화된 경전언해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이 점은 『내훈』이 15세기까지 일반적이었던 간경도감 불경언해의 형식을 수용한 것과 비견된다. 그러나 한문원문에 구결만 달려 있을 때와는 달리, 원문에 독음까지 달림으로써 한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훈』의 언해형식으로는 한문을 모르는 여성이 한문원문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여사서』처럼 독음이 있는 경우는 한문을 모르는 여성이라도 한문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훈언해』나 『여사서』가 사대부 남성의 경전언해와 동일한 형식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후기 문자체계의 변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자체계가 성별과 신분에 따라 이원화되었지만, 조선후기에 와서는 상하남녀로 구별되었던 문자체계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인다. 간행자가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겠지만, 『여훈언해』와 『여사서』도 여성이 한문을 익히는 방편이 됨으로써 그러한 변화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 동안 규훈서는 꾸준히 간행되고 보급되었다. 이러한 규훈서의 보급은 흔히 유가이데올로기의 내면화과정으로 평가되었다.[17] 그러나 『내훈』과 『열녀전』을 즐겨 읽었던 여성의 사례를 보면, 당대의 규훈서는 표면적으로는 도덕교육서였지만 사실상 문자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의 묘지명과 행장에서 뽑은 사례들이다.

① 세상에 부녀로서 선비의 행실이 있다고 칭송받는 자는 집안일을 소홀히 경우가 많고 실과 삼을 살피는 자는 교훈에 몽매하다. 그러니 의인(宜

17) 일례로 김경미는 『열녀전』을 정절 이데올로기를 각인시킨 수신서로 평가하였다. (앞 논문, 53면.)

人)처럼 총명하고 정민하여 여공의 자잘한 일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자가 없다. 의인은 『내훈』과 『열녀전』, 『소학』 등을 일찍이 모두 섭렵하여 그 큰 뜻을 이해했다.(世之婦女稱有士行者, 多忽內事, 察絲枲者則矇訓法, 又未若宜人, 惟其聰慧, 所遇精敏, 女紅之屬, 無細不能. 至內訓, 列女傳, 小學等書, 皆嘗涉覽, 識其大義:최립의 <宜人李氏墓碣銘>)

② 현명하고 단정하며 빼어났으며 『내훈』과 『열녀전』 등을 읽기를 좋아하여 그 큰 뜻을 대략 파악하였으니 부모가 모두 특별히 사랑하였다. (明惠端秀, 好讀內訓, 列女傳等書, 略通大義, 父母皆奇愛之:유성룡의 <金氏墓誌>)

③ 부인은 덕이 있고 성실하고 사려 깊었으며 또한 『내훈』과 『열녀전』에 능통하여 고금의 치란을 알고 사리를 분별하였으니 사군자의 기풍이 있었다. 夫人雅有德性, 一於塞淵, 又能通內訓列女傳, 識古今治亂, 辨事理, 綽有士君子風:신익성의 <淑夫人金氏墓誌銘>)

위의 예문에서는 규훈서를 열심히 읽어 통달한 여성이 총명한 여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③에서 신익성은 부인 김씨가 선비와 같은 풍모를 지녔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훈』이나 『열녀전』을 통해서 지식을 넓힌 결과이다. 또한 ①에서 최립은 '사행(士行)이 있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은 내사(內事), 즉 집안일에 소홀하고 여성의 직분에 충실한 여성들은 무지몽매하다고 하면서, 의인 이씨는 여공을 빈틈없이 해내면서도 『내훈』이나 『열녀전』, 『소학』을 널리 깨우쳤다고 하였다. 규훈서를 익히는 것이 여성의 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증의 <망실숙인조씨행장(亡室淑人曺氏行狀)>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김수증의 부인은 『소학』과 『내훈』에 통달하였으면서도 여성으로 태어나 문장과 역사를 더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였고, 남편이 글을 읽으면 옆에서 이를 하나씩 깨달았다고 하였다.[18]

18) 정형지 · 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2』, 보고사, 2006, 262면.

규훈서에 통달한 지적인 여성이 규범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남성과 대등한 수준의 지식을 얻고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 남성의 발언에서도 규훈서와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있다. 송명흠(1705~1768)은 당시 부녀자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규범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개탄하고 있다.[19] 글을 통해 배워야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그의 의식에서 도덕교육은 문자교육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정범조(1723~1801)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정범조는 당시 풍속이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한다고 나서는 일도 없이[無非無儀]"[20]하라는 『시경』의 구절을 준신한 나머지 밥과 술, 방적에만 힘쓰게 하니 여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1] 이러한 발언에서 여성의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문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규훈서가 문자교육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2]

> ① 『내훈』과 『여계』 등은 만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이것만 오로지 탐독만 하면 역시 해롭다. 하물며 무익한 시율(詩律)을 공부하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하면 여공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내면의 행실이 불순하다는 나무람까지 듣게 될 것이다. 이는 중이 술을 마시면 계율을 범하고, 용렬한 하인이 글을 알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과 같은 예가 된다. 규방의 여성들은 마땅히 명심해야 한다.(이익의 『성호사설』 <시문

19) "近世婦女, 專無敎誨, 或爲兒, 便習妖媚巧黠, 錦繡金珠, 出入人家讌會, 以賭聲譽……凡此數, 同歸於失德, 誠由古訓之不聞(송명흠의 <규감서>)

20) 『시경』「소아(小雅)」<사간(斯干)>의 구절.

21) "近俗忌婦女讀書, 閨閤之秀, 壹束之酒食紡績之內, 而以無非儀爲釁, 固東人之陋也"(정범조의 <규감서>)

22) 고전번역원 인터넷자료(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참조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문(詩文門)> '잡찬(雜纂)')

② 우리나라 풍속은 중국과 달라서 문자를 알려면 힘써 공부해야 하니, 부녀자가 처음부터 마음 둘 것이 아니다. 『소학』과 『내훈』의 등도 모두 남자가 익힐 일이니, 부녀자들은 묵묵히 연구하여 그 논설만을 알도록 그 때 그 때 훈계하면 된다. 부녀자가 만약 누에치고 길쌈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먼저 시서에 힘쓴다면 옳은 일이겠는가?(이익의 『성호사설』 <인사문(人事門)>의 '부녀지교(婦女之敎)')

성호 이익은 ①에서 규훈서가 혹 행실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탐독하면 해롭다고 하였고 또 ②에서는 여성의 교육은 말로써도 가능한데 굳이 글을 통해 가르쳐서 누에치고 길쌈하는 일에 힘써야 할 여성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하인이 글을 알면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이다. 성호는 여성의 문자 교육이 비록 '교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차(性差)와 위계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성호 이익은 규훈서가 교화를 넘어서 문자교육의 수단임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성호의 생각은 그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규훈서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에서 『내훈』이나 『여사서』 등 규훈서의 번역과 간행이 사실상 여성의 문자습득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훈서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이 독점하였던 지식과 교양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규훈서의 내용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규훈서의 학습은 그러한 차별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자'를 익히는 수단과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 규훈서는 도덕교과서인 동시에 어문교재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필사본에 수용된 규훈서

1 『내훈』이나 『열녀전』, 『여사서』 등 규훈서는 목판본 혹은 활자본으로도 존재하였지만,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의 형태로도 존재하였다. 필사는 부족한 인쇄본을 대체하는 행위를 넘어서 독서의 한 과정이었으며, 학습의 수단이기도 했다.[23] 죽당 신유의 여동생 신씨가 『열녀전』을 베껴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기록[24]이나 채제공의 아내가 『여사서』를 베껴 쓴 사례[25]등 여성의 규훈서 필사에 관한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당대의 여성이 필사를 통해서 규훈서를 학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규훈서의 필사본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및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10종의 규훈서 한글 필사본이 발견되었다.[26]

① 내칙(1권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② 사소절(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③ 고금여범(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④ 여교(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⑤ 열녀전(2권 2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⑥ 소학(1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⑦ 고열녀전(1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⑧ 여범(4권 4책, 동경대학교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소장)

---

23) 이지영, 앞 논문, 2008 참조.
24) 김경미, 앞 논문, 63~64면.
25) "嗚呼女四書一冊, 贈貞敬夫人同福吳氏手蹟也.....忽見諺書一卷顚倒几案之間, 卽夫人所親書女四書而未及了者也. 字畫婉婉如見其人"(채제공의 <여사서서>)
26)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거나 여타의 대학도서관이나 개인소장본들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규훈서의 한글필사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⑨ 곤범(3권 3책,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⑩ 여사서(1권 1책,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위의 자료 중에서 ②·⑦·⑩은 기존 규훈서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여 필사하거나 간행본의 언해문을 그대로 필사한 책들이다. ②사소절은 이덕무의 『사소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매우 단정한 궁체로 필사하였다. ⑦고열녀전 역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는데, 『열녀전』을 <식군부인(息君夫人)>까지만 필사하였으며 흘림이 없는 정자체이다. ⑩여사서는 간행본 『여사서』의 언해문만을 단정한 궁체로 필사하였다.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7종은 기존 규훈서를 부분 부분 발췌하여 필사한 것이다. ①내칙은 <내칙>·<광명보감>·<치가사>·<여행가>·<이혜랑후인전>·<여계>·<선고문정공행장>·<정속언해>등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다. 맨 뒷장에 '해평 윤씨'의 조상에 대한 간략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평 윤씨'가 필사자임을 알 수 있는데 <선고문정공행장>에 의하면 해평 윤씨는 조만원(趙萬元)의 둘째 며느리이다. 해평 윤씨가 윤정렬(尹鼎烈)의 딸임은 뒷장의 족보와 행장의 기록에서 모두 나타난다. ③고금여범은 『열녀전』·『내훈』·『거가잡의』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필사한 책이다. ④녀교는 '집덕'·'검신'·'독륜'·'법가'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독음에 구결을 단 원문을 한글번역문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원문이 한문인 규훈서를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한다. ⑤열녀전은 『방씨여교』[27], 『여훈』·『열녀전』의 일부, 『내훈』과 『여계』의 일부, <대명열녀설씨육부문답>를 필사하고 있다. ⑥소학은 『소학』의 일부와 <이대봉전>을 필사한 책이다. ⑧

27) 『방씨여교』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내훈』에 일부 인용되어 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훈』에 인용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전해지지 않던 『방씨여교』의 한글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여범은 표지 뒷면에 “此四冊諺書, 卽莊獻世子私親宣禧宮映嬪李氏手蹟也”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가 필사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책은 『고금열녀전』을 재구성하여 필사한 책이다. ⑨곤범은 경전 및 역사서 등을 발췌하여 번역, 필사한 책으로 단정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28]

이들 규훈서 중에서 상당수는 그동안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않았던 자료들이다. 특히 ⑤열녀전, ⑥소학, ⑩여사서 등은 소장기관의 간략해제를 제외하면 주목받은 적이 없는 자료들이며, ①내칙은 해제 수준의 소개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그동안 규훈서 연구가 주로 간행본에 한정되어 있었던 탓이다. 필사본 규훈서는 간행본을 베낀 것으로만 인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29]

그러나 규훈서의 필사본은 한자 없이 순한글로만 필사된다는 점에서부터 간행본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간행본의 경우 한문원문과 언해문이 공존하고 또한 언해문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사본에서는 원문이 생략되고 번역문만을 수록하고 있다. ④여교나 ⑨곤범은 원문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한자는 사용하지 않고 구결이 달린 한글독음만 제시하고 있다.

한문원문을 한글독음과 구결로 바꾸어 필사하는 방식은 규훈서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한글필사본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한글/남성-한자의 어문생활 구조 안에서 해석했다. 즉, 이종묵은 여성의 문자생활이 한글로 전용된 결과라고 추정하였고,[30] 이경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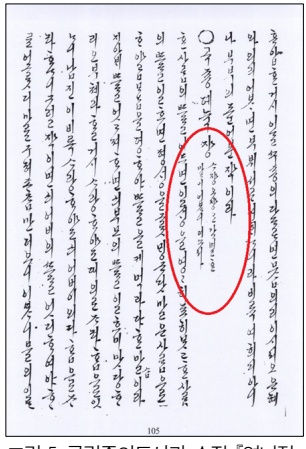
28) 『곤범』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참조.

29) 위에서 소개한 10종의 규훈서 필사본 중에서 여성이 필사한 것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자료는 ①과 ⑧이고 소장처와 필체로 보아 여성이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⑨와 ⑩이다. 나머지는 여성이 필사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 다 숙련된 필체로 필사되어 있다는 점과 규훈서 등의 내용을 발췌해서 필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여성이 규훈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0)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 『진단학보』 104, 진

"젠더 권력관계에 지배되는 기존의 어문생활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어문생활의 영역을 확대해 간 자기검열의 결과"로 보았다.[31]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한글필사본에서 한문원문을 한글로만 제시한 이유보다는 그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글로만 필사된 '변형된 원문'은 여성이 한문을 우리말화해서 받아들인 텍스트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글로만 표현된 한문은 원문과는 결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한문을 학습하였던 사대부 남성은 한문원문을 떠올리지만, 한문을 학습하지 않았던 여성은 구결을 통해서 우리말로 재조직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한자 없이 독음과 구결로만 기록한 텍스트는 한문도, 우리말도 아닌 '우리말로 재조직된 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여성은 한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한문을 구송하여 수용할 수 있었고 구송된 것은 다시 한글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열녀전』

2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위의 필사본 가운데 7종에서는 기존의 규훈서가 그대로 필사되지 않고 선택과 배제에 의해 재편집되어 수용되고 있다. 특히 ⑤열녀전에서는『여계』를 필사하면서 4장과 5장을 생략하면서 "ᄉᆞ쟝 오쟝은 각별ᄒᆞᆫ 말이 업ᄉᆞ니 더 노라."(그림4 참조)라고 하였다. 4장은 '부행(婦行)'으로 여자의 행실을 서술한 대목이고, 5장은 '전심(專心)'으로 남편에게 성심을 다할 것을 당부한 구절이다.『내훈』에도 들어가 있는 두 장에 대해서 '각별한 말'이 없다고 한 것은 필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규훈서의 필사자가 자

단학회, 2007.

31) 이경하,「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1면.

신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선택과 배제의 성향 때문에 동일한 책을 필사하였더라도 지향이 다른 책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⑤열녀전과 ⑧여범은 모두 『고금열녀전』에 수록된 역대 여성의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한 책이지만, 선택한 기사나 배열순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⑤열녀전은 열녀(烈女)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반면에 ⑧여범에서는 열녀의 사례가 한 권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③고금여범에도 『열녀전』의 몇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열녀로 볼 수 있는 여성은 없고 현명한 여성의 사례만 10건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①내칙과 ⑥소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⑥소학은 『소학』을 발췌하여 필사하고 있는데 주로 『열녀전』과 『내칙』을 인용한 항목을 필사하였다. 이처럼 필사본은 원본과는 다른 책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선택과 배제의 경향은 텍스트 안에서도 나타난다. 『내훈』이나 『여사서』, 『소학』 등 간행본의 언해서는 모두 원문에 충실하다. 그러나 필사본에서는 생략과 축약, 부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⑧여범의 경우 <주실삼모>에서 태사와 관련된 부분만 수록하였고 <추맹모>에서는 맹자가 진퇴를 고민하는 대목은 생략하였으며, <노희경강>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길쌈을 말리자 어머니가 아들을 질책하는 장면만 필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략과 축약의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축약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연된 부분도 나타나는데, 한나라 경조윤 준불의(雋不疑)의 어머니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⑧여범의 내용을 『고금열녀전』의 원문과 비교해보자.

> ㉠ 한나라 경됴윤 ᄒᆞᆫ 쥰불의 어미ᄂᆞᆫ 셩품이 슌젼ᄒᆞ고 조심ᄒᆞ야 ᄀᆞ장 어지러 거가ᄒᆞ매 정셩되고 졔ᄌᆞ ᄀᆞᄅᆞ치기를 법이 이셔 ᄒᆞᆫ번 밥 먹고 언쇼ᄒᆞ기도 구챠티 아니ᄒᆞ더니 그 시의 ᄒᆞᆫ 나라히 아젼 다ᄉᆞ리기를 슝상ᄒᆞᄂᆞᆫ 고로 관원이 엄ᄒᆞ고 ᄀᆞ박ᄒᆞ니 만터니 뫼 닐오ᄃᆡ 엄ᄒᆞ고 ᄀᆞ박ᄒᆞ기 ᄇᆡᆨ셩의 목숨을

해ᄒᆞ미라 ᄒᆞ고 ᄆᆡ양 깁히 슬허ᄒᆞ더니(⑧여범)

㉡ 漢京兆尹 雋不疑之母也 仁而善敎(『고금열녀전』)

원문의 '仁'을 ⑧여범에서는 "성품이 순전하고 조심하여 가장 어질어 거가함에 정성되고"로 번역하였고 '善敎'를 '여러 아들 가르치기에 법도가 있다'로 옮기고 있으며, 그 다음의 밑줄 부분에서는 아예 원문에는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부연하였다. 이 내용은 준불의가 경조윤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영향으로 각박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 다음 내용을 의식해서 부연된 것으로 보인다.

⑥소학에서도 역시 원문의 내용을 변형한 사례가 발견된다. 『소학언해』 간행본의 내용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 여ᄌᆞᄂᆞᆫ 열 살 먹거든 문의 나지 안이하며 방적과 의복 짓기을 가라치며 디ᄉᆞ 찰이ᄂᆞᆫ 법을 갈아치고 열다섯 살 먹거든 빈혀 꼿고 시무살 먹거든 시딥가난니 만일 상유 되오면 시물 서이에 시집가ᄂᆞᆫ이라. (⑥소학)

㉡ 겨집이 열히어든 나ᄃᆞᆫ나디 아니ᄒᆞ며 스승어믜 ᄀᆞᄅᆞ치믈 유슌히 드러 조ᄎᆞ며 삼과 ᄯᅮᆨ삼을 잡들며 실과 고티를 다ᄉᆞ리며 명디깁 ᄡᅳ며 다회 ᄯᅡ며 겨집의 이ᄅᆞᆯ ᄇᆡ화 ᄡᅥ 衣服을 쟝만ᄒᆞ며 祭祀에 보ᄉᆞᆯ펴 술와 촌믈과 대그릇과 나모 그릇과 팀치와 저ᄉᆞᆯ 드려 禮로 도와 버리기를 도올디니라. 열히오 또 다ᄉᆞᆺ히어든 빈혀 곳고 스믈히어든 남진 브틀디니 연고 잇거든 스믈 세힌 히예 남진 브틀디니라.[32](『소학언해』)

⑥소학의 내용은 원문을 직역한 『소학언해』보다 훨씬 간략하다. 간행본에서는 "삼과 뚝삼을 잡들며 실과 고치를 다스리며 명주깁 짜며 다회 짜며"등 구체적으로 서술된 대목이 필사본에서는 "방적과 의복짓기"라고 축약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⑥소학의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32) 이 글에서 인용한 『소학언해』와 『내훈』, 『여사서』는 대제각의 영인본에서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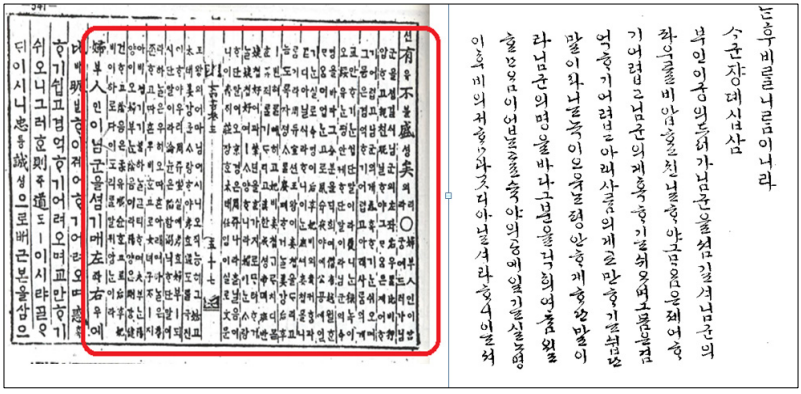


그림 6『여사서』의 간행본(왼쪽)과 필사본(오른쪽)

3 기존의 간행본을 충실하게 필사한 필사본이라고 해서 원문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⑩여사서는 간행본『여사서』의 언해부분만 옮겨 적은 필사본으로 간행본을 충실하게 필사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간행본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간행본에서는『여계』의 서문 다음에 세주(細註)로 처리되었던 조대가에 대한 서술이 필사본에서는 서문에 앞서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글씨로 필사되었으며, 주석과 본문의 글자크기가 동일하게 필사하였다. 그리고『여사서』중에서『내훈』[33]은 주석을 빼고 본문만 필사하였는데, 유독 '사군장(事君章)'만은 본문의 글씨와 동일한 크기로 주석을 필사하였다.(그림 5참조) 궁중여인의 처신에 관한 내용의 주석을 굳이 필사하고 있는 것은 ⑩여사서가 궁중에서 소장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밖의 필사본에서도 원문에서는 본문과 주석이 행갈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필사과정에서 섞이거나 바뀌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③고금여범의 뒷부분에서는 사마온공의 <거가잡의>를 발췌하여 필사하였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그림 7 참조)

33) 여기서의『내훈』은 명나라 인효문황후가 편찬한 책으로 흔히 조선의 소혜왕후의『내훈』과 구별하여『황후내훈』이라고 한다.

㉠ 녀지 칠 셰어든 남녜 흔 돗긔 안디 아니ᄒᆞ며 흔 그릇시 밥 먹디 아니ᄒᆞ며 효경과 논어를 외오며 츌입과 좌와의 어룬의게 ᄉᆞ양ᄒᆞ여 후의 ᄒᆞ며 듕문 밧긔 나디 아니ᄒᆞ며 아홉설이어든 효경과 논어와 열녀뎐 녜계 ᄀᆞ튼 칙을 외와 대강 뜻을 알게 홀디니 녜 어딘 겨집이 글을 보와 스스로 닷그니 조대가 ᄀᆞᄐᆞ니는후한 반뷰의 쫄이오 부풍 고을 조셰슉의 쳐라 녯글을 니기 알고 의논이 붉고 정답이니 이졔 사름은 쫄 ᄌᆞ식을 노래춤과 글지이를 ᄀᆞᄅᆞ치며 셰속 풍뉴 잡들게 ᄒᆞ니 ᄀᆞ장 맛당티 아닌 일이라. 겨집 ᄌᆞ식을 브드러우며 공슌ᄒᆞ기로써 ᄀᆞᄅᆞ치고(③고금여범)

㉡七歲男女不同席不共食 始誦孝經論語 雖女子亦宜誦之 自七歲以下謂之孺子 早寢晏起食無時 八歲出入門戶 及卽席飮食必後長者 始敎之以廉讓 男子誦尙書 女子不出中門 九歲男子誦春秋及諸史 始爲之講解 使曉義理女子亦爲之 講解論語孝經及列女傳女戒之類 略曉大意 十歲男子出就外傅居宿於外讀詩禮傳爲之講解 使知仁義禮知信 自是以往可以讀孟荀楊子博觀羣書 凡所讀書必擇其精要者而讀之 其異端非聖賢之書 傳宜禁之 勿使妄觀以惑亂其志 觀書皆通始可學文辭 女子則敎以婉娩聽從及女工之大者(사마온공 <거가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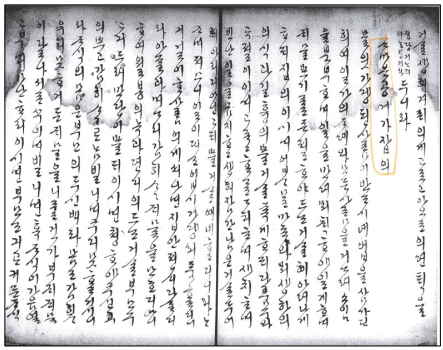


그림 7 서울대 규장각 소장『고금여범』

③고금여범의 인용 대목은 사마온공 <거가잡의>란 소제목 하에 필사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원문과는 크게 다르다. 원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③고금여범에서는 남성과 관련된 대목을 생략하고 여성교육에 관한 내용만 추려놓았다. 그리고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원문에는 들어 있지 않다. 혹 부연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거가잡의>가 실려 있는『가례』의 주

석과 내용이 동일하여[34] 주희의 주석이 본문에 섞여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순히 필사자의 부주의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주석의 내용이 원문과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필사방식은 원문의 의미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곤범에서는 주석의 내용을 수정한 예도 나타난다. ⑨곤범 권1의 <시뎐>에서는 시경의 구절을 수록하고 있는데, 원문의 독음을 한글로 적고 구결을 달았으며 원문에 대한 번역 없이 바로 이어서 주자의 주석을 번역하여 실었다.

㉠춤치힝치를 좌우뉴지로다 뇨됴숙녀를 오미구지로다 구지브득이라 오미ᄉᆞ복ᄒᆞ야 유ᄌᆡ유ᄌᆡ라 뎐뎐반측ᄒᆞ노라.

흥야라

춤치는 길고 쟈른 거시 ᄀᆞᄌᆞ론티 못ᄒᆞᆫ 거동이오 힝은 믈ᄂᆞ물이라. 좌우뉴지는 올흔 편과 왼편을 믈로 흘러가며 ᄯᅳᆺ는다 말이라. 오미구지는 ᄭᅵ야 자매 구ᄒᆞ다 말이오 복은 ᄉᆡᆼ가가ᄒᆞ다 말이오 뎐뎐은 두로혀 눕다 말이오 반측은 두로혀다 말이니 다 누으매 돗기 평안티 아냐 ᄒᆞᄂᆞᆫ ᄯᅳᆺ이니라.(두 칸 여백)웃대문은 태ᄉᆞ의 덕을 니ᄅᆞ미오 이 대문은 문왕이 태ᄉᆞ를 엇디 못ᄒᆞ신 ᄯᅢ의 궁인이 위ᄒᆞ야 이런 ᄇᆡ필을 어드시과져 ᄒᆞ야 ᄉᆡᆼ각ᄒᆞ고 구ᄒᆞ미니 오미ᄉᆞ복과 뎐뎐반측이 다 궁인이 그리ᄒᆞ다 말이라.(⑨곤범)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興也

參差, 長短不齊之貌. 荇接余也. 根生水底, 莖如釵股, 上青下白, 葉紫赤圓, 徑寸餘, 浮在水面, 或左或右言無方也. 流順水之流而取之也. 或寤或寐, 言無時也. 服猶懷也. 悠長也. 輾者轉之半, 轉者輾之周, 反者輾之過, 側者轉之留, 皆臥不安席之意. ○此章本其未得而言. 彼參差之荇菜, 則當左右

34) “古之賢女無不觀圖史以自鑒, 如曹大家之徒, 皆精通經術, 議論明正, 今人或敎女子以作歌詩執俗樂, 殊非所宜也”

無方以流之矣. 此窈窕之淑女, 則當寤寐不忘以求之矣. 蓋此人此德, 世不常有, 求之不得, 則無以配君子, 而成其內治之美. 故其憂思之深, 不能自已, 至於如此也.(『詩經集傳』)

⑨곤범의 주석 부분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주희의 주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축약하고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⑨곤범의 밑줄 부분은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주자의 주석에서는 "이 사람과 이 덕은 세상에 흔히 없기에 구하여 얻지 못하면 군자가 짝을 지어 내치를 이룰 수 없는 고로 근심한 것이다."라고 하여 주 문왕이 근심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⑨곤범에서는 "오매사복과 전전반측이 다 궁인이 그리 하다 말이라"고 하여 궁인이 근심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아마도 ⑨곤범의 편집자가 문왕이 여성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겨 주석의 내용을 바꾸어 놓은 듯하다.

이상으로 규훈서의 한글필사본에 나타난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사본에 나타난 이러한 변이가 규훈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나 한글소설의 경우에도 그대로 필사하기보다는 필사자에 의해 변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필사를 하면서 독서의 과정 내지는 학습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글 문자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필사본이라고 해도 한문본에서는 이러한 변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문본에서는 원텍스트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대인들은 한글이 말과 가깝다는 점에서 '문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하고 한글을 '언문(諺文)'이라 한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문자였던 한글은 문자로서 한자와 같은 권위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글은 구술적인 속성을 지니면서 한문텍스트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개방성을 보인다. 원문의 권위가 한문본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기에 원문의 변형이 비교적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4. 규훈서의 수용과 이탈

필사본 규훈서에서 발견된 변이는 규훈서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원텍스트의 의미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는 ⑧여범에서 열녀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인 것처럼 규범에 대한 보수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⑤열녀전에서처럼 열녀(烈女)와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고 현명한 여인상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곤범』에서는 주자의 주석이 변형되기도 하는데, 간행본을 통해서 경전 언해가 표준화되었던 남성중심의 한자의 문화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렇다면 규훈서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원문 그대로 수용되었는지도 의심된다. ①내칙에서 『여계』의 '곡종(曲從)'이 언해되고 필사된 양상을 통해 이 점을 따져보기로 한다.

> ㉠ 싀어미 그르다 니ᄅᆞ거든 네 올히여도 진실로 맛당히 ᄉᆞᆷ을 조출 거시며 싀엄이 올타 니ᄅᆞ거든 네 글너 뵈야도 오히려 맛당히 命을 슌죵ᄒᆞ야 시러곰 是非를 違戾ᄒᆞ며 曲直을 爭分티 말올디니 이 곧 니론바 曲從이라.(간행본 『여사서』)
>
> ㉡ 싀어미 그ᄅᆞ다 니ᄅᆞ거든 네 올희여도 진실노 맛당히 녕을 조출 거시며 싀어미 올타 니르거든 글어 뵈야도 오히려 맛당히 명을 슌죵ᄒᆞ여 시러곰 시비를 위려ᄒᆞ여 곡딕을 징분티 말을디니 이 곳 닐은박 곡죵ᄒᆞ미라.(①내칙)

①내칙의 『여계』 대목은 표기만 다를 뿐 내용은 『여사서』 언해와 거의 동일하여 아마도 간행본을 보고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내칙의 '곡종'은 『여계』의 다른 항목에서는 필사하지 않았던 주석까지도 모두 베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①내칙에 필사된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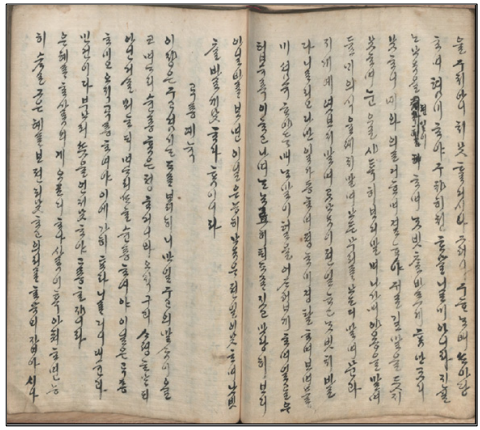


그림 8 서울대 도서관 소장『내칙』

이 쟝은 구고 셤기는 도를 붉히니 만일 구고의 말숨이 올코 며ᄂᆞ리 슌죵홈은 정ᄒᆞ거니와 오직 구괴 사령ᄒᆞ믈 되 아닌 거술 써ᄒᆞ딕 며ᄂᆞ리 또ᄒᆞᆫ 슌죵ᄒᆞ여야 이 닐온 곡죵ᄒᆞ미오 오직 곡죵ᄒᆞ여야 이에 가히 효라 니ᄅᆞᆯ디니 대슌과 민건이 다 부모ᄭᅴ 뜻을 엇지 못ᄒᆞ야 곡종ᄒᆞᆫ 쟈니라.(①내칙)

주석에서는 설사 시부모가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가르침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시부모의 말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따르라'는 말이 주석에서는 '**시부모가 도가 아닌 것을 명하더라도** 따르라' 말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순임금과 민자건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인해 시부모가 부도덕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이 오히려 뚜렷해졌다. 본문에서 '며느리로서 시부모의 말씀에 시비를 다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였을 때는 시부모의 판단이 옳고 그른가보다는 며느리가 시부모와 생각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주석에서는 '시부모가 옳지 않은 것을 명하더라도 따르라'고 함으로써 시부모가 판단의 오류로 '도가 아닌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각된다. 그리고 이어 순임금과 민자건의 예를 들었는데, 순임금의 경우 아버지 고수의 명령에 항상 따르지는

않았다. 아버지 몰래 혼인을 하는 등 '그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였다. 맹자는 이를 '권도(權道)', 즉 임기응변의 도라고 두둔하였지만[35], 순임금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항상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주석의 내용은 잘못된 명을 내리는 부모의 사례와 이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던 순임금의 사례를 통해 오히려 '곡종'의 부당함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①내칙에서 '곡종'장에서만 주석을 필사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필사자가 유독 '곡종'의 주석을 필사한 이유는 그 내용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석이 필사됨으로써 시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주석의 내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곡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대목은 ⑤열녀전에서도 필사되고 있는데, ⑤열녀전의 경우에도 원문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대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시어마님이 그 일이 그러티 아니라 하여 그 일이 올흐면 죵녕하기 맛당ᄒᆞ거니와 싀어마니님이 ᄒᆞ라 ᄒᆞᄂᆞᆫ 일이 **올티 아냐도** 조ᄎᆞ미 가하니라. 되다 올타 하고 일을 어그릇디 말며 구브며 고ᄃᆞᆯ ᄃᆞ토와 분변티 말을디니 이거시 구펴 조츰이라.(⑤열녀전)

⑤열녀전에서는 원문의 '시부모의 말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따르라'는 말이 '옳지 않아도 따르라'는 말로 바뀌었다. 옳지 않아도 따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규범을 강조한 듯하지만, 시부모의 판단력과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발전하면 순임금처럼 부모의 명을 어기는 경우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규훈서의 수용과정에서 필사자의 의식이 개입된 증거로 볼 수 있다.

35) "舜告焉則不得娶, 而終於無後矣. 告者, 禮也, 不告者, 權也."(『孟子』, <離婁章上>

규훈서 필사자의 문제의식에 관한 보다 뚜렷한 사례는 <대명열녀설씨육부문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⑤열녀전에서 『여계』 부분 바로 다음에 필사되어 있다. 내용은 명나라의 현명한 시어머니 설씨가 여섯 며느리들과 '여교'에 대해 주고받은 이야기이다.[36] 여섯 며느리들은 각각 "시비를 베풀어 이르지 말라", "부인은 안을 다스려 중문 밖을 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라", "몸가짐을 엄숙하게 하면 잡말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병들어 죽는 행실은 더럽다" 등 일반적인 규훈서에 나오는 규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설씨는 상황에 따라 규훈서의 이러한 규범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말로 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문답을 살펴보자.

> 맏며느리 영씨 묻자오되 "여교에 여편이 시비를 베풀어 이르지 말나 하였으니 조각의 유익한 일이 있어 알아도 이르지 못 하리이까?" 설씨 이르되 "어질고 슬기로워 진실로 희부기(僖負羈) 아내-죄라 하는 나라 태우 희부기 아내 남편을 가르쳐 진나라 임금 문공을 후대하게 하니 후에 복이 되니라 같으며 양창의 아내 같으면 어찌 슬기롭기 해로우리오. 경계함은 어질지 못하고 슬기로운 양하여 여희 신생 죽임과 이후 고열왕 속임과 같음이 있을까 함이니 어진 조각의 경계를 겁하여 쓰지 아니하면 여교 없음만 같지 못하니라. 경강이 베틀을 인하여 치국을 종요를 이루니 공자 기려 계시니라.

설씨의 맏며느리가 '부인은 시비를 베풀어 이르지 말라'고 한 여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익한 일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말고 있어야 하느냐고 묻자, 설씨는 『열녀전』에 나오는 슬기로운 여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밑줄 부분과 같이 '어진 아내가 조언을 하지 못한다면 여교가 없느니만 못하다'고 하였다.

36) 여기에서 '여교'가 특정한 책 제목인지 일반적인 규훈서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은 명나라 때의 일인 듯 서술되고 있지만, “도미의 아내가 개로왕과 더불어 밤에 말했으나 오히려 욕을 면하였으니 군자가 옳게 여겼”다는 말이나, “중국에 여교가 없어 오직 사나이를 가르쳐 수신하며 제가치국하여 평천하 하게 하니 백성이 각각 구소를 얻었다가, 중도에 계집이 사나온 이가 있어 여교가 나오니 어진 계집이 부끄러워하였다. 요사이 조선의 여행을 보니 그 풍속을 가히 알 만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명나라의 일을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명열녀설씨육부문답>은 규훈서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글이 『여계』를 필사한 뒤에 바로 이어서 필사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필사자가 이 글의 작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사자라고 해도 규훈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계』에 바로 이어서 이런 내용의 글을 필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에는 규훈서를 읽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이 규훈서를 무조건 내면화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은 규훈서 학습의 역설적 결과이다. 규훈서 학습은 표면적으로는 도덕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규훈서를 열심히 읽은 여성은 남성의 영역에 속한 지식과 교양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규훈서의 필사본에 나타난 변이는 규훈서 학습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필사본에 나타난 비판적 사유의 흔적이 과연 여성의 주체적인 사유인지 판단하려면 좀더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37] 그러나 설사 남성이 개입한 결과라 하더라도, 규훈서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식과 이념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7) <대명열녀설씨육부문답>은 여러 정황이나 내용으로 보아 여성의 창작물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룬다.

5. 결론

이상으로 규훈서의 번역과 확산이 여성의 문자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규훈서의 언해 및 간행 목적은 여성교화이다. 국가에서는 규훈서를 간행하여 여성들의 수신교과서로 권장하였고, 여성들은 규훈서를 읽고 필사하면서 유가적 지배이데올로기를 학습하였다.

그러나 규훈서의 학습은 윤리적 측면보다는 여성의 어문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성호 이익이 지적하였듯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은 말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이유로 문자학습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문자학습을 정당화하였다. 최초로 간행된 규훈서인 『내훈』은 한글이 여성의 문자로 정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경전언해와 동일한 형식으로 간행된 『여사서』는 여성도 한문을 익힐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런 점에서 규훈서는 여성의 문자생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규훈서를 열심히 읽은 여성이 '여사(女士)'로 칭송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필사본에서 확인되는 원문의 변형은 여성이 규훈서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사본 규훈서의 이러한 변형은 한글 고유의 개방성 및 유동성에서 기인하는데, 규훈서의 원문은 한글로 번역되고 필사되는 과정에서 원문과는 달라졌으며 때로는 원문과는 다른 지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형은 규범을 이탈하려는 조짐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규훈서의 학습을 곧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으로 파악했던 기존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四庫全書 CD판)
『古今女範』(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가람 古 396-G557)
『古今列女傳』(四庫全書 CD판)
『古列女傳』(劉向 撰, 顧凱之 圖畵), 北京:中華書局出版, 1985.
『고녈녀전』(김민지 교주),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8.
『곤범』(3권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9)
『내측』(1권 1책, 서울대 도서관 일사 396 N127)
『內訓』(3권 3책,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25-12)
『녀교』(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가람古170.951-Y4)
『녀사셔』(4권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99)
『번역노걸대・박통사・소학언해・사성통해』, 대제각, 1985.
『사서언해』, 대제각, 1985.
『ᄉᆞ쇼졀』(1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1149-22)
『삼강행실도(성균관대본・ 규장각본)』, 홍문각, 1990.
『소학』(1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1256-43)
『詩經集傳』,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4.
『列女傳』(2권 2책,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411)
『여범・계녀서・내훈・여사서』, 대제각, 1985.
『女四書』(2권 2책(결본),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155-16)
『여훈언해・규합총서』, 홍문각, 1990.
『윤음언해・이륜행실도・가례언해』, 대제각, 1985.
고전번역원 인터넷자료(http://db.itkc.or.kr)

김경미, 「『열녀전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51~82면.
김언순, 「『곤범』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여훈서의 새로운 양상」, 『장서각』 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159~193면.
김언순, 「조선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연구』 8권 1호, 2008, 1~42면.
김훈식, 「15세기 한중내훈의 여성윤리」, 『역사와 경계』 79, 부산경남사학회, 2011, 75~111면.
백두현,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통치」,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263~297면.
안병희,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8, 연세대국학자료원, 1985, 793~821면.
여찬영, 「언해서 『여훈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어문학』 86, 한국어문학회, 2004, 61~43면.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61면.
이경하, 「중세의 여성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31~55면.
이경하,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17~339면.
이경하, 『내훈』, 한길사, 2011.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향유와 이중언어체계」,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면.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이충구, 「경서언해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1~237면.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2008, 83~114면.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일고」,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구소, 2009, 3~20면.
정형지 · 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2』, 보고사, 2006, 1~480면.

志部昭平, 「諺解三綱行實圖の傳本とその系譜」,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65~115면.

최연미, 「소혜왕후 한시 『내훈』의 판본고」, 『서지학연구』 22, 서지학회, 2001, 351~370면.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31~257면.

Abstract

The ethical textbook of women and literacy of women

Yi, Ji-Young

This study is on books for ethical education of women in Joseon. From 15th century, many textbooks for ethical education of women were printed by dynasty. On the one hand, the purpose of those books was to reforms women for Confucian ideology, but on the other, was to educate women for reading and writing. *Lesson for houswife*(내훈) was the first textbook for ethical education of wom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ith korean endings and the translation of original text. This bilingual text form resulted from the thought that Hangeul, the Korean own alphabet, was imperfect and had no authority. All the more, Hangeul-literate public were not many in those days. So the print of 내훈 spread the Hangeul literacy of women. *Lesson for women*(여훈) printed in 17th century and *Four books for women*(여사서) in 18th century were also bilingual texts, but had the difference in the mode of chinese original text that has korean endings and pronunciations of the original texts. This mode of the text was general in the Confucian scriptures for first learning nobleman. Because of the korean endings and pronunciations, the first learner could learn the chinese text by himself. This was so for the women. Women could learn the chinese with the aid of the korean endings and pronunciations. So I thinks the printed ethical education for women effected the literacy of women and the weakening of diaglossia in late Joseon

which discriminated man and women.

Meanwhile, more general text of ethical education of women was not the printed but the transcribed. The ethical textbooks for women were transcribed only in Hanguel, so the changes of original text were inevitable. The changes range from omissions, contractions and amplifications to reinforcement of comments. These changes in transcribed women's ethical textbooks means the changes in thought about the Confucian ideology. *The conversation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명나라열녀설씨육부문답), the fictional and critical writing on ethics for women shows that the text transcribed in Hangual has the openness and autonomy, so it makes women to have critical mind.

Key words : ethical education of women, textbooks for ethical education of women, *Lesson for houswife*, *Lesson for women*, *Four books for women*, bilingual text literacy of women, diaglossia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